

GYEONGNAM

2008.11 VOL.002

# MECENAT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경남메세나협의회



## 기업과 문화예술이 만나면

### 기업이 행복해집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문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가 향상됩니다.

### 직원이 행복해집니다.

창의적인 기업 문화가 조성되고 직원들의 자부심이 높아집니다.

### 고객이 행복해집니다.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고객 충성도가 올라갑니다.

###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경제와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 Contents

04 휴(休)

06 메세나 인터뷰

08 예술의 희망이야기

10 기업과 예술의 만남

15 메세나 칼럼

16 줌 인 메세나

20 예술과 여행

22 문화와 나

24 경남메세나의 1년

26 행복한 경남 만들기

28 현장에서

30 언론에 비친 경남메세나

32 메세나 가족 소개

### 경남메세나협의회와 함께 하시면

-회원사의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화마케팅 세미나 등 수준높은 문화컨설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메세나 매거진 및 언론 등을 통해 효과적인 기업 홍보를 지원해드립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이므로 회비나 문화예술단체 결연 지원금은 물론 기타 문화예술단체 지원금도 지정기부금 처리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 인정

· 개인 : 연간 소득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

|      |   |
|------|---|
| 가입대상 | ▶참여하고 싶은 기업, 개인, 문화예술단체는 누구라도 가입 가능       |
| 가입방법 | ▶입회신청서 1부 제출                              |
| 연회비  | ▶기업 : 연 2백만원 이상<br>▶개인/문화예술단체 : 연 1백만원 이상 |

경남메세나 통권002호 발행인\_문동성 | 발행일\_2008. 11. 01.

| 발행처\_경남 창원시 중앙동 101-5 경남은행 3층 경남메세나협의회 Tel\_055-285-5611 Fax\_055-285-5610 www.gnmecenat.or.kr

| 편집인\_손갑동 | 사진\_j2studio | 기획·편집\_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_055-296-4995 | 인쇄\_(주)화성 Tel\_055-295-4995



# 꿈꾸는 자전거

유홍준

산모퉁이 아련한 시골길로 가자  
 불 붉은 잠자리 떼를 지나  
 무심한 허수아비 어깨를 흔들며  
 꿈을 꾸는 바퀴여 튜브 가득 잊었던 바람을 집어넣고  
 바퀴여 가자 이 좋은 가을날을 핑계 삼아  
 추억의 앞바퀴가 굴러가면 詩가 되어 따라가는 뒷바퀴  
 현실의 브레이크가 잡으면  
 한숨 한 번 크게 쉬고 돌아다오 페달이여  
 길가의 꽃들마저 바퀴같이 둥근 꽃잎을 가졌구나  
 방아깨비처럼 추억의 궁둥이 달짝거리며  
 가자, 가자 저 고요한 구름 그림자 속으로  
 꼬집어 누군가가 그림다고 말하면 저 산 너머에서 전투기 한 대  
 하늘에 하얀 밑줄을 그으며 날아오를 것 같은 시골길

■ 유홍준: 1962년 경남 산청 출생. 1998년 『시와반시』 신인상으로 등단. 시집으로 『喪家에 모인 구두들(실천문학사)』 『나는, 옷는다(창비)』가 있다. 1991년 개천문학신인상. 2002년 대산창작기금 수혜. 2005년 한국시인협회 제1회 젊은시인상. 2007년 제1회 시작문학상. 제2회 이형기문학상을 받았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2007년 10월 출범한 경남메세나협회는 154개에 달하는 지역 내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등이 회원으로 가입, 경남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해 ‘문화마케팅 전략 세미나 및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경남메세나협회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통해 지역기업과 문화예술단체 9쌍이 신규결연을 맺게 하는 등, 경남문화예술 발전 분위기를 다시 한번 고취시켰다. 7월 23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문동성 경남은행장을 만나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 본다.

**2대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소감이 어떠십니까?**

지난해 10월 창립 이후 오늘까지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온 경남메세나협의회 수장이 된데 큰 자부심과 더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경남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활동중인 메세나협의회로 우리지역의 자랑거리라 생각합니다. 경남 지역은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보유한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문화예술과 지역기업들이 함께 발전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출범한지 겨우 1년인 경남메세나협의회 사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성과들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 154개 회원기업을 확보한데 이어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사업’을 통해서도 모두 26개 팀이 결연을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협의회를 통해 현재까지 회원기업들이 문화예술계에 지원한 규모만도 7억여원에 이르며, 연말에는 약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해왔으며, 길지 않은 기간 상당한 성과들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지금의 성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협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토록 할 것이며,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춧돌 삼아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메세나 활동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경남의 문화예술은 매우 다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세기 문화콘텐츠로서의 활용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예컨대, 통영시는 동양의 나폴리라는 수식어와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을 낳은 고장답게 세계수준의 통영국제음악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거창군의 국제연극제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무대 삼아 펼쳐지는 연극공연을 선보임으로써, 거창국제연극제만의 특색 있는 연극제를 구현해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와 거창국제연극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예술행사로 자리매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남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때야말로 경남 기업들의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역의 기업들이 경남문화예술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경남문화예술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약기를 맞은 경남메세나협의회는 ‘문화예술로 행복한 경남 만들기’란 사명완수를 위해 양적·질적 성장을 함께 이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남메세나협의회 주요사업이랄 수 있는 결연사업을 더 활발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 결연사업이 일회적인 결연행사로 그치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단체와 기업이 동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메세나의 트렌드는 순수한 후원이나 기부 차원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해당 기업의 경영전략 또는 마케팅 수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선진 외국의 메세나지원 사례에서처럼 기업과 예술의 협력관계, 즉,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전 실행해 오던 결연사업과 연계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업의 문화마케팅지원을 통해 기업과 문화예술의 만남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 밖에도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상대적으로 소외된 문화예술장르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경남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하고 싶은 말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2010년 국제적인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은 경제적 역할은 물론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마케팅의 천재 필립 코틀러의 말처럼, 기업의 메세나활동 참여는 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기업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 함께 행복해지는 문화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려울 뿐 문화예술을 체험하면 그 효과는 무엇보다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메세나 참여로 창조적인 경영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 “외로운 노인과 외로운 어린이에게 위로와 꿈을”



복지재단 풀잎마을의 민수(12)는 친구들과 함께 멋진 구경을 했다.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마련한 사랑의 나눔 티켓으로 오페라를 관람한 것이다. 사실 오페라라고 해서 처음에는 좀 그랬다. TV에서 가끔 광고 하는 것을 보면 오페라는 외국말로 하거나 우리말로 해도 무지 알아듣기 힘들어 보였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오페라를 보려면 옷차림도 정장을 입어야 한다고 했다. 말도 하면 안되고 박수도 쳐서는 안된다고 했다.  
“어휴! 지루하겠는 걸! 정말 박수치면 안되는 거야?”  
잠깐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선생님께서 이 오페라는 우리나라

라 소설을 경남에 계신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어렵지도 않고 편찮을 거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도 되고 재미있을 것 같았다.  
**역시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공연장에 와서 보니 다른 아이들이나 형들, 어른들도 편안한 차림으로 와 있어서 마음이 되었고 박수칠 기회가 있었지만 마음으로 찼다고 했다.  
**대견한 민수!**

마산 3.15아트센터도 처음 와 본 곳이었는데 건물이 깨끗하고 뽀뽀 말은 못하겠지만 멋진 곳이 생각에 들었다고 한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 책으로 볼 때는 몰랐지만 가까이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을 직접 보니 자꾸 눈물이 나올려고 해서 혼이 났다고 했다. 사나이가 눈물을 보이면 안될 것 같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에 뭐 들어간 것처럼 하며 눈물을 닦아냈는데 옆에 앉은 형들이 본 것 같아 창피했다.

**민수야, 그건 아니야! 진짜 사나이는 울어야 할때 울 줄 아는 사람이거든! 다음에는 마음껏 울어도 괜찮아, 알았지?**

그런데 민수가 공연중에 화가 치밀었다고 했다. 자꾸 옆에 앉은 형들이 저희들끼리 수군거렸기 때문이다.  
“왜 저러는 거야? 좋아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에이! 뭐야, 저렇게 끝나는 거야? 저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민수는 자꾸 신경 쓰이게 하는 형들에게 외치고 싶었다.  
“형들이 사랑을 알아? 우리 선생님은 화끈하게 금방 불타오르는 사랑보다 두고두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오래 오래 가슴에 남는 사랑이 진짜라고 했어. 사랑은 여러 종류가 있다고 했어.”

**제법인 민수! 철없이 공연장에서 떠드는 형들보다 우리 민수가 훨씬 의젓하구나!**

돌아가는 길에 자꾸 같은 반에서 늘 말없이 친절하게 대해 주는 은경이 생각도 났다는 민수는 벌써 사춘기에 접어 든 것 같았다. 오페라를 보게 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오페라<소나기>의 주인공들과 사진촬영도 한 민수는 “이런 공연 자주 보고 싶지만, 안되겠죠?” 하고 묻는다.

**걱정마라, 민수야! 자주 보게 될 거야! 이번에 기회 준 선생님들은 민수와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니까 말이야.**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는 문화나눔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다양한 문화를 즐길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메세나' <사랑의 국악연주회>는 6월 16일부터 의령 가례복지마을공연을 시작으로 19일 창원 노인복지관까지 네 차례 공연을 마산국악관현악단이 맡아 신명나게 펼쳤다. 전통놀이형식의 신놀이와 판소리 흥보가 중 박타령, 즉흥연주 시나위에 부채춤과 장구춤이 어우러진 경기 민요, 거기다가 풍물굿까지, 5백여명의 노인들이 오랜만에 흥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했다. 마산국악관현악단은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했고 문화생활을 즐길 처지가 안되는 노인들은 위로와 외로움을 떨칠 좋은 기회였다. 의식주가 해결된다고 해도 끝없이 밀려오는 노년의 외로움은 영혼부터 좀 먹는다. 잠시나마 노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흥겹게 해 준 기회였다고 믿는다.

아동양육시설 어린이를 위한 즐거운 나눔티켓 사업인 오페라<소나기>는 마산체임버오페라단의 창단공연으로 마산 3.15아트 센터에서 공연했다. 민수 말고도 4백여명의 복지시설 어린이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그뿐 아니라 이미 창원 성산 아트홀의 <뽀로로와 요술램프>, 진주 경남 문화예술회관의 <오즈의 마법사>에는 2백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초청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서 지난 8월에는 4백여명의 어린이들이 거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 가족극 페스티벌에 초대되어 <하루 이야기>와 <어린왕자>를 관람했다. <하루 이야기>는 신화에 관한 이야기로, 하루이런 아이가 해도 달도 다 먹어치우고는 산이 되고 강물이 되고 산맥이 된다는 이야기다. 상상력이 풍부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작품이었다. 특히 <하루이야기>는 재활용품 쓰레기들을 활용해서 만든 무대장치들이나 재활용 악기연주, 그리고 한지로 만든 인형등 아이들 눈망울을 초롱초롱하게 만들 거리들이 많았던 작품이었다. 안과 밖은 통한다는 메시지가 자연을 지향하는 극의 특이한 부분이 어린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특히 외로운 어린이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꿈 꾸는 일이고 그 '꿈'을 경남 메세나 협의회에서 꾸도록 도와주었다고 자부한다.

현대사회에서 문화와 예술은 놓치지 말아야 할 삶의 일부이다. 그러나 일정한 계층만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면 한계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소외계층이나 서민들, 복지시설의 노인들도 문화 예술을 쉽게 만나 즐길 수 있게 하는 일은 세상이 각박해 질수록 더욱 더 절실한 일일지 모른다. 그 일을 경남메세나협의회가 한몫 단단히 맡으려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이어질 경남메세나협의회 문화 나눔 사업은 무엇보다 그 부분에 강점을 둘 것이다.





경남에너지(주)…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에너지공급과 문화공급은 같은 생명줄”

경남에너지(주)는 정연욱 대표를 중심으로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에너지 기업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환경사랑 어린이 사생대회, 소년소녀가장과의 결연, 시민교양강좌, 사랑의 PC전달, 장애인 문화체험활동, 양로원 및 고아원 돕기, 농촌 자매 결연사업등 다양한 사회결연활동을 통하여 지역에 봉사하는 향토기업이기도 하다. 1972년 창업 이래 30년이 넘게 지역의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창원과 마산, 진해, 거제, 김해, 통영, 밀양지역까지

꾸준히 공급권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급격히 변해가는 에너지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 연료전지나 수소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고효율 에너지 공급 시스템인 구역형 집단 에너지사업진출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종합에너지 서비스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종합콜센터를 운영해서 모든 고객민원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고객 여론조사와 고객 모니터 요원제도를 통해 실생활에서 느끼는 고객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기업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경남에너지(주)와 결연을 맺은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2004년에 창단했다. 2005년 12월 제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해서 경남지역 민간오케스트라의 공식적인 출범과 전문단체로서의 바람직한 성장을 예고한 바 있다. 경남출신의 열정적인 관현악연주자들이 모여서 부단한 연구와 기획을 통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 클래식 애호가들의 열정적인 찬사를 받는 전문연주단체로 거듭나고 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소리 찾기 자선음악회 등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음악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 단체이다.

지역의 우수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만나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경제적 지원에 걸맞는 수준높은 연주나 공연이 1차적인 결과물일 것이다. 한 발 더 나가면 기업의 임직원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그 결과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또 하나,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소외계층에게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일텐데, 경남에너지(주)나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나 그런 일에 관심이 높다. 지금까지 해왔던 경남에너지(주)의 사회결연활동이나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자선음악회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런 그들이 만나 이루어낼 결과물은 이전에 각자가 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훌륭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경남메세나에서 마련한 만남의 장이 생각보다 더 값진 결과를 쏟아낼 것 같아 가슴이 뛰는다.

(주)북성산업…풍류춤연구소



“기업이 시설을 정비하듯 예술은 사회를 정화해야”

창원시 팔룡동에 있는 (주)북성산업은 1996년도에 만들어져 벌써 13년째 자란 중견기업이다. 오수처리시설 시공과 주택관리업, 경비청소업, 상하수도 설비공사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설물유지관리업에 집중할 계획이며 ‘정도’와 ‘상생’을 사훈과 경영방침으로 내걸고 꾸준히 성장해왔다. 국립창원대학교 출신인 박환병 대표는 재학시 학생회장을 맡았던 재원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계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모교에 대한 애정도 높다.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게 된 진주의 풍류춤연구소와는 몇 년 전부터 인연을 맺고 있었다. 풍류춤연구소에는 모교 출신 단원들도 있어서 애정어린 관심을 유지해왔다고 한다.

박환병 대표는 지난 9월 20일에 있었던 풍류춤연구소 공연을 보기 위해 바쁜 일정 중에도 진주로 날아갔다. 진주시 진양호 안에 있는 전통예술회관 공연장에서 펼쳐진 이날 공연은 ‘춤빛’ 1부와 2부 ‘운수 좋은 날’로 구성되어 사람들은 그들의 노련한 춤사위에 빠져들기 충분했다. ‘춤빛’은 말뚝이춤과 갈춤, 영남덧배기춤, 한량춤, 장구놀이, 북장구놀이 등 듣기만 해도 정겨운 전통춤들로 꾸며졌고 ‘운수 좋은 날’은 창작춤으로 현진건의 소설<운수 좋은 날>을 강동욱 풍류춤연구소 대표가 직접 각색한 것이었다.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재능은 아무나 가지는 것이 아니다. 지역기업의 대표가 그런 그들의 재능을 알아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풍류춤연구소는 2000년에 창단되어 올해로 8년째 서부경남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이다. 단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에 20회가 넘게 크고 작은 공연을 펼쳐왔으며 주로 사라져 가는 전통춤을 제대로 복원해서 알리는데 그 의미를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1,2년에 한번씩 역시 전통춤에 기본을 둔 창작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 보이고 있기도 하다. 춤은 추는 사람의 신명은 물론이고 보는 사람의 신명까지 책임져야 진짜다. 우리의 전통춤은 특히나 보는 것이 위주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그 특색이다. 창원에서 날아간 (주)북성산업 박환병 대표의 정성도 대단하고 아무리 메세나로 결연한 사이지만 진주까지 오게 한 풍류춤연구소의 힘도 대단하게 느껴진다. 전통춤과 같은 문화예술의 매력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는 박환병 대표는 앞으로 결연맺은 풍류춤연구소와 연계한 멋진 계획도 갖고 있다. 공개는 아직 이르다고 언급을 피하지만 무언가 굵직하게 사고(?) 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든든하게 결연단체를 지원해 온 박환병 대표는 앞으로는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 미조종합건설(주)…한국연극협회거제지부

“무대를 만들었던 경험을 경제적 지원으로”

거제에 위치하고 있는 미조종합건설(주)는 재무구조가 탄탄한 거제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로 소문나 있다. 박중우 대표의 자부심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영방침으로 한번 같이 일한 협력업체들이 또 다시 일하려고 한다는데 있다. 거제지역 43개 건설업체중 높은 도급순위를 자랑한다. 지역내 대형 공사 수주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연극협회 거제지부와 올해 초 인연을 맺고 거제 세계희극축제를 열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경남메세나협회의 회원이 되었다. 특별히 연극을 지원하는 데는 박중우 대표의 개인적인 이유도 있는데, 15년 전 쯤 극단에서 무대제작을 담당하는 스태프로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건설업체에 뒤지지 않는 실력으로 지역 경제와 문화예술에 기여하겠다는 포부가 크다. 한국연극협회 거제지부는 1993년 설립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경남연극제 개최와 2007년 제25회 전국연극제를 개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단체로 특히 2008년 세계희극축제를 열어서 거제지역 연극발전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 (주)동환…벨라미치예술단

“콩나물 시루에 물주듯 문화를 자라게 하는 지원”

창원에 위치한 (주)동환은 2003년 설립되어 170여명의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으며 주로 인력관리와 용역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나 삭막함을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기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과 직원들에 대한 문화예술향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육성 의지에 대한 영향으로 상당한 규모의 문화예술지원을 실천하고 있으며 벨라미치예술단과 결연을 맺어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회사 창사 기념으로 벨라미치예술단의 뮤지컬 공연을 임직원과 그 가족을 초청해서 즐거운 시간을 갖게 했다.

2007년 창단한 벨라미치예술단은 지역내 공연예술의 활성화와 인재발굴활동을 모색하고 지역민들에게 공연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재 본격적인 활동의 기반조성작업을 위해 주2회 정기연습을 하는 등 창단 기념 공연에 이어 정기공연을 준비중에 있다. 지역내 유망한 음악인재를 발굴하는 등 발전적인 활동이 예상되고 있는 예술단체이다. (주)동환 조영파 사장은 문화예술을 즐긴다는 것이 보는 순간 당장 무엇이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눈에 보이지 않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조금씩 정서에 축적되어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며 각박한 세상살이에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지원이 바로 문화예술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란다. (주)동환과 벨라미치예술단의 만남 결과가 더욱 기대된다고 하겠다.



### 경양석유(주)…경남첼버쏘사이어티

“정량, 정품, 신속”은 문화예술지원에도 통하는 경영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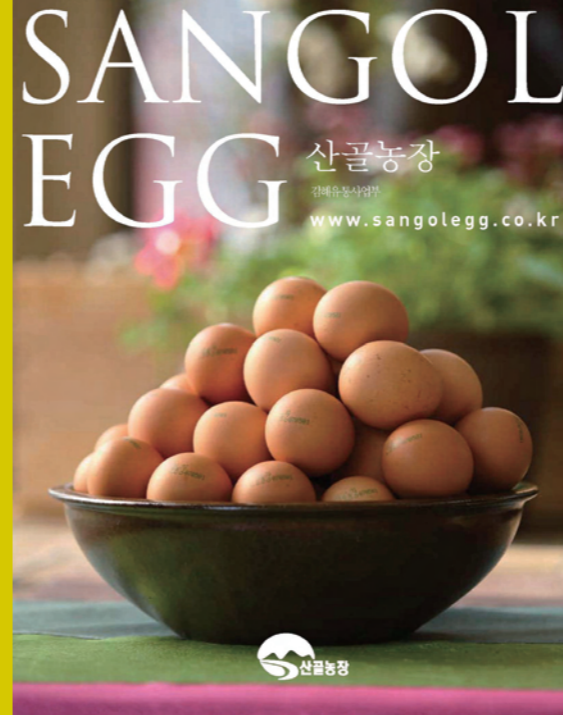
경양석유(주)는 1968년 11월 30일에 법인이 설립되어 부산·경남지역의 유류 공급의 원활화를 위하여 41년째 외길을 걸어오고 있다. “정량, 정품, 신속”이라는 경영 방침을 바탕으로 현 대표이사 이인호 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이 혼연일체로 업무에 임하고 있고, IMF 이후에는 빨라진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외형위주의 경험과 관행에서 탈피하고 내실경영을 바탕으로 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경영성과에 따른 특별상여금도 해마다 지급하고 있으며 직원학자금 보조나 종업원 국내외 연수등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고 주5일 근무제도의 빠른 정착으로 경영자와 종업원간의 상호 믿음도 높은 기업이다.

결연단체인 경남첼버쏘사이어티와는 창단 때부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등 비공식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앞으로는 고객청 정기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공식적인 결연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첼버쏘사이어티는 2000년 3월에 창단된 우리 지역의 실내악전문연주단체로, 현재 차문호 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창단 이후 연2회씩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창작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수준 높은 연주단체이다. 특히 창작음악회는 다른 연주단체와는 다르게 예술가의 기본인 창작의 성격을 제대로 살려서 자신들이 만든 새로운 음악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평가를 받으려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이다. 경양석유(주) 이인호 대표와는 초기부터 이어진 인연만큼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면서 결국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들고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것만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길임을 잘 알고 있는 연주단체이다.



### 산골농장…지리산팍스오케스트라

“웰빙푸드기업이 약속하는 문화”



산골농장은 산청군 신안면 지리산 해발 250미터 산자락에 위치한 10만여평 규모의 양계농장이다. 약 45만여수의 양계(산란계)를 보유중인 기업이다. 첨단 설비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이용해 양계농장으로서 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산골농장 모든 양계장의 닭들은 클래식음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최상의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상호 대표를 중심으로 농장주변의 멋진 환경을 테마공원형태로 조성해서 장미공원과 분재원, 조각공원등을 꾸며 놓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즐거움과 믿음을 선사하는 등 자연과 인간 친화적인 기업을 지향하고 있는 웰빙푸드 기업이다. 산골농장이 결연을 맺고 있는 예술단체는 지리산팍스오케스트라로 진주 지역 전문음악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창립되었다. 그 이후 정기공연과 서부경남지역의 각종행사 축하공연 등을 통해 활발한 연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산청군과의 교류를 통해 군내 각종 축제행사(약초축제등)공연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서부 경남지역청소년 밴드 경연대회도 개최해서 지역음악계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 신창기계...마산청소년관현악단

“**예술개발과 문화예술인재 발굴은 같은 일**”

마산 봉암단지안에 위치한 신창기계는 1997년 창업했으며 현재 구자도 대표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술력을 겸비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2년 9월 QS-9000인증을 획득하고 2004년 2월에는 창원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해서 기술력을 증진 하는 등 해당 분야 기술개발에 전념해 왔으며 해외시장 개척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결연단체인 마산청소년관현악단과는 지난 6월에 한 식당에서 만나 손을 맞잡았다. 일년중에 전후반기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마산청소년

관현악단은 연 4회 신창기계 식구들을 위해 정기공연을 하기로 한 것이다. 신창기계 구자도 사장의 포부는 크다. “늘 지역발전 위해 무엇인가 사회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문화예술지원 분야는 특히나 구체적인 활동이라고 판단, 지원을 결심했다고 한다. 마산청소년관현악단은 1990년에 만들어진 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남 최초의 청소년관현악단이다. 그동안 35회의 정기연주회와 협주곡의 밤, 송년음악회와 해설음악회, 또 순회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동유럽순회공연이나 일본 후쿠오카 초청공연과 중국 청소년교향악단 초청 공연 등 국내외적으로 왕성한 공연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이다. 상임지휘자인 김호준 단장은 이번 결연이 지역 청소년문화활동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반가워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뿐만 아니라 인재발굴과 육성에도 역할을 다해야겠다는 용기를 준 것이라고 다시 한번 손을 잡았다.



## (주)포스아이...진해미술협회

“**기업의 꿈과 미래를 문화와 예술지원을 통해 사회로**”

꿈과 미래가 있는 회사 (주)포스아이는 2002년 10월에 설립되었다. 최기석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창사이래로 해상과 항공, 화물운송을 기반으로 통관, 창고업 등 물류 전 영역에 걸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경영철학은 TOP정신(일등정신)으로, Trust(신뢰), Openness(열린 마음), Passion(열정)

으로 고객의 물류를 책임지고 고객의 미래를 함께 창조하는 사업 동반자로 생각하자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기업환경 변화와 국제 물류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미주나 유럽, 아시아 등 세계 주요지역에 20여개의 해외법인과 지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고 고객의 국제물류를 책임지는 글로벌 일등 물류기업의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하고 맹렬히 돌진하는 기업이다. 윤리경영에 대한 노력도 확실히 해 두고 있는데, 고객과 협력사에 대한 윤리, 주주에 대한 윤리, 임직원에게 대한 윤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까지 상세하게 회사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을 정도로 회사 신뢰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TOP정신(일등정신)으로 글로벌 일등 물류기업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주)포스아이는 지역문화예술지원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진해미술협회와 결연을 맺었다. 진해미술협회는 1963년에 창립하여 지금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의 미술단체이다. 창립이후 현재까지 전국학생미술실기대회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봄·가을로 회원정기전도 열고 있고 2004년부터 한일교류전 개최 등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홍보 등에 선도적 역할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의 예술단체이다. 기업과 예술단체가 만나서 높은 지역공헌도가 예상되는 결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문화 마케팅의 출발은 유연성

최근 미국에서 1년 여 머물면서 제가 다시 어떤 인물로 태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꼭 그 사람처럼 한번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억 연봉을 받는 로펌 변호사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도 아닙니다. 다른 아님, 제가 살던 동네의 스펜서라는 10살 짜리 꼬마입니다. 누구보다 이 녀석한테 배운 게 많습니다. 제가 [딜리셔스 샌드위치]라는 책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이 꼬마한테서 모두 얻었습니다.

스펜서는 저와 사귀는 동안 직업이 3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탐정이었습니다. 미국 어린이가 책을 보면 유난히 탐정 이야기가 많은데, 이 녀석도 한동안 탐정 이야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주택에는 뒷마당에 잡동사니 넣어놓는 창고가 있는데, 스펜서는 집 창고를 개조해 탐정 사무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복잡한 암호 풀다고 끄공대고, 사건 해결한다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상한 것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몇 달 지나니깐 직업이 군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반 애들 너댓명 끌고 다니면서 줄타기 훈련시키고, 철봉 훈련 시키며 대장 행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인디애나존스4를 보고 나더니, 직업이 고고학자로 바뀌었습니다. 미이라 책 뒤지고, 유물 찾으러 이집트 가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군요. 거의 연구 수준으로 고고학에 집중했습니다. 이런 스펜서를 보면서 나이 불문하고 몰입을 한다는 게 참 위력적인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펜서한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아님 유연성입니다. 스펜서는 마흔살이 넘은 저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영어 제대로 못하는 저의 아들도 친한 친구로 받아줬습니다.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도 스펜서의 친구가 많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스펜서는 요리도 배우고, 무지컬도 배우고, 운동도 배웁니다. 10살 밖에 안되지만 음악은 주로 하드락을 듣습니다. 저는 스펜서가 천재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큐가 높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좋아하고, 사랑할 줄 알고, 배우고 싶어하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들여다 볼 수 있는 자세, 이런 유연성을 가진 사람이 천재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유연성이라 함은 익숙치 않은 이질적 문화에 대한 포용력, 굳이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여려는 자세, 자신의 통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생각과 주장에 대한 열린 마음일 것입니다. 단적으로 10살짜리 꼬마가 일흔 살이 된 할아버지와 친구가 될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미국 아이들에게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10명 가운데 절반은 일본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아니라 닌텐도 때문입니다. 사실 닌텐도는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아이들의 마음을 읽고, 아이들의 일상에 녹아 들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일본이 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업적으로, 예술적으로 알뜰도록 유연성을 잘 발휘합니다. 일본 기업은 세계인들의 마음을 읽고 받아들여 상업화 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창한 기술력의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나 브랜드 파워만으로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차피 기술이라는 것은 요즘 워낙 범용화하고 있어, 금방 따라옵니다. 애들의 아이팟을 곰곰이 보면 오히려 기술을 버렸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버튼도 줄이고, 라디오 기능도 빼냈습니다. 디자인을 혁신했고 음악을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악을 일상의 액세서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세계인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을 버리고 대신 유연성을 집어 넣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마케팅의 출발도 바로 유연성입니다.

**유병률**, 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외환위기 때부터 현실경제 흐름을 최일선에서 지켜보고 밀착 취재해왔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경제포커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서른살 경제학>과 <여자 경제학>, <딜리셔스 샌드위치>가 있다. <서른살 경제학>은 2005년 이후 경제학 서적 대중화의 견인차 역할을 한 베스트셀러로, 30대에 고령화와 저성장이 초래할 시대적 흐름을 꿰뚫는 경제적 안목을 키워주었다.



# “시간과 빛의 마법이 습지를 만나면...”



가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 같은 사물에서도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를 남들에게도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 창원 상남동에 위치한 원광종합건설의 조성계 사장! 그는 한때 회사보다 봉암갯벌 찾는 일이 더 행복했다. 새벽이면 새벽, 점심이면 점심, 또 퇴근 후... 신들린 사람마냥 2년여를 마산 창원지역의 봉암갯벌을 헤맸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 봉암갯벌! 지금은 물고기도 살고 새도 날아든다. 그렇지만 더럽고 불길한 곳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물론 함참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갯벌 위를 지나는 봉암다리 주변에는 낚시꾼들이 줄을 지었던 적도 있지만 말이다. 긴 세월 희비가 엇갈려온 봉암갯벌에서 그는 보물을 건져 올린다. 바로 사진이다. 그는 봉암갯벌의 일년은 사계절이 아니라 365계절이라고 말한다. 날마다 옷을 갈아입고 갈

때마다 표정을 달리하는 드라마가 그곳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에게만 보이는 봉암갯벌의 드라마를 사진으로 펼쳐 보았다. 신비스럽고 이국적인 느낌이 가득한 흑백의 조화로운 사진! 아, 어쩌면 봉암갯벌이 태어나던 태곳적엔 이랬겠구나... 1만5천여 장의 사진속에 살아있는 그의 봉암갯벌은 단순한 갯벌이 아니다. 마치 우리가 책임지고 복원해야할 자연환경의 미래 같다. 사람들은 주남저수지 하면 무엇보다 철새를 생각한다. 다들 놓치는 것이 있다. 바로 새를 날아오게 만드는 힘이다. 새들의 낙원이 되기 위한 조건 말이다. 주남저수지는 수생식물이 풍부한 습지로 갈대가 2미터씩 자란다. 긴 시간 무수한 생명을 품고 자란 습지! 생명의 원천인 습지! 조성계 사장은 그런 주남저수지의 생명성을 놓치지 않는다. 찰각! 차르르...차르르...찰각!



아마도 그에겐 생명의 찰나를 잡아내는 힘이 있나 보다. 생태계의 소우주인 갯벌과 습지들을 기록할 책임이라도 있는 것처럼 렌즈로 잡아놓는다. 아마도 천계와 인간계를 이어주는 마법사의 소명이 있나보다. 그의 소명이 완수되는 날, 인간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얻은 보물들을 2007년 사진전을 열어 사람들에게 내놓았다. 또 지난 9월부터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람사르 총회기념 특별전”에도 올렸다. 그동안 주남저수지에서 관찰하고 기록한 사진을 전 세계에서 물려온 환경관계자들과 도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 SITE&SIGHT; 濕 展!

젊은 날, 조성계 사장은 사진의 매력에 빠져 있었다. 십여 년을 동아리활동도 하며 사진으로 살았지만 사업을 위해 카메라를 내려놓는다. 그렇지만 봉암갯벌을 만나면서 다시 카메라를 들게 됐다. 처음에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아는 직원들은 없었다. 봉암갯벌을 새벽부터 해마다 온 그지만 출근시간이면 어김없이 깔끔한 정장차림으로 나타났으니까 말이다. 빛나는 그의 차트링크에 흙 묻은 장화와 옷가지들이 있다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갯벌을 뛰지고 다니는 사장님을 상상이나 해 보았을까. 전시회를 하게 되면서 직원들도 사장의 프로젝트를 눈치 챘다고 한다.

사진은 기다림이다. 특히 조성계사장의 사진은 빛과의 싸움이다.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들을 기다림으로 잡아낸다. 낮과 밤이 공존하는 듯한 그의 사진풍경들은 어찌 보면 비현실적이다. 현실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그 현실을 초월하고 싶은 작가의 욕망일 것이다. 그 욕망은 다시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도 연결된다.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진작가활동을 하는 조성계 사장! 그는 경남메세나협의회 준비단계부터 힘을 모았던 사람중 한사람이다. 그가 결연하고 도와주는 곳은 경남사진학술연구원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이므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리라. 그는 수시로 오년 후나 십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한다. 열개의 목표를 잡으면 다섯 개는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남은 목표가 몇 개 더 있다며 마치 자신의 사진처럼 신비하게 미소 짓는다. 아-, 셔터 한 장 누르고 싶어진다.





## “인산 죽염과 가곡의 만남”

늘 인간이 사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 고민하던 여대생 최은아는 긴 고민끝에 진리를 깨닫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인간육체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을 하자고 결심한다. 결국 대학 독문과 3학년때 순천향 의대 의예과 시험을 치르고 합격했다. 그렇지만 우연히 읽게 된 인산 김일훈 선생의 책(우주와 신약)을 통해 삶의 경로를 또 한번 바꾸게 된다. ‘왜 인간은 자신을 위해서는 희생하면서 만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자신을 버릴 수 없을까?’, ‘힘들게 살다가 죽는 삶이라도 옳은 것을 위해 기꺼이 선택할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을 인산 선생의 책에서 풀게 된다. 인산 선생을 안 순간,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확고하게 자리잡은 것이다.

세계최초 발명 죽염인 인산죽염 등 수많은 인산선생의 발명품들 앞에서 뒀을 읽고 감격하며 배워 나갔다. 그러는 과정에서 인산선생의 삼남인 김운수씨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발명품은 많이 남겼으며 재산은 남기지 않았던 집안에서 며느리 최은아는 육남매를 키우면서 시아버지의 발명품을 확인하고 다시 실험하며 제품으로 만드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 월평리 지리산 자락의 인산죽염촌! 그녀는 인산 죽염을 원료로 담은 간장인 ‘사리장’을 특허등록 했다. 죽염을 발명한 사람은 인산 김일훈 선생이지만 그녀는 작은 발명가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선생의 발명품을 존경과 애정으로 쳐다보며 적응하고 응용해서 현실에서 보다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말이다.

1920년대 인산 선생이 만든 죽염은 세계 최초이다. 서해안 천일염을 우리나라 대나무 안에 넣고 황토로 밀봉, 지리산 맑은 공기속에 소나무를 장작으로 삼아 9번 구워서 만든 인산 죽염! 많이 알려진 듯 하지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죽염이 인산선생의 발명품이란 사실을 널리 알리는 일이다. 죽염을 이용해 만든 ‘사리장’의 약효를 증명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목숨을 구하거나 병마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쁘고 실 틈이 없다. 아이들 역시 할아버지의 놀라운 업적을 세상에 알리도록 한 아이는 서울 법대에 보냈고 한 아이는 외국에서 의대 공부를 할 예정으로 민족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다. 둘 다 엘리트급이지만 할아버지에 비하면 태양아래 반딧불이라며 그녀는 미소 짓는다. 인산죽염촌 대표 최은아씨! 그의 모든 사업과 계획은 오로지 인산죽염으로 통일되어 있다.

올해로 3회째였던 함양죽염축제 <인산 가곡 상림>을 개최하는 일도 인산선생의 죽염발명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다. 함양의 상림숲은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숲이다. 이곳 상림공원 잔디마당에서는 해마다 9월 첫째 토요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진다. 실내에서 듣는 가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자연의 바람과 자연의 소리와 자연의 풍경과 어우러지는 노래들은 참으로 아름답다. 최은아대표는 가곡이야말로 인간의 심성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음악이라고 예찬한다.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이 바로 가곡이라는 것이다. 그 자리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모두 우리 가곡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임을 처음 알았다고 하면서 음악이 아름답다는 것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했노라 말한다. 그 사람들이 가곡을 처음 들었을 리는 없겠지만 지리산 자락의 자연이 주는 신비스런 힘과 주최하는 이의 맑은 마음을 고스란히 느꼈기 때문이라.

올해는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활약하는 세계 정상적 성악가와 차세대 신진 성악가들이 함께 했던 국제 가곡제를 열었다. 그리고 가곡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음악가를 시상하는 <인산가곡상>을 제정했다. 그 첫 수상자로 우리 음악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오현명 교수를 선정했다. 이 일들을 경남메세나 협의회와 함께 했고 회원사로 가입했다. 민족사관학교에서도 가곡의 발간지를 열었다. 죽염 인연으로 유럽이 주무대인 바리톤 우주호 선생을 초청한 무대였다. 청소년들에게도 가곡의 예술성과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뭐 그런 걸 하느냐고 비죽거리던 사람들이나 학생들이 감동의 무대였노라며 박수를 치는 것을 보고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다고 한다. 최은아 대표의 잔잔하고 해맑은 얼굴에 스케줄 표가 막 스쳐지나간다. 여섯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일도 엄청난 일인데, 인산 죽염에 관한 제반 사업을 관장하고 또 발명을 위해 실험도 끝없이 한다. 논문 준비도 하고 있다고 했다. 인산한의원 운영 역시도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곳이 암치료센터라는 입소문을 타고 암 말기 환자들이나 난치병환자들이 그곳을 찾게 때문이다.

인산죽염촌 최은아대표! 그의 열정으로 보아 인산죽염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는 날이 되면 지리산 자락 함양상림숲에는 날마다 가곡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울려 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메세나협의회 덕분에  
1년 동안 할 문화생활을  
오늘 다 할 수 있었어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열은 안개속 아침, 흐린 하늘 아래에서 정형식씨 가족과 함께 통영으로 내달린다. 새벽녘에 천둥과 비가 내려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오늘의 주인공 정형식씨 가족은 같은 티셔츠를 입은 설정부터 정겹다. 포스코 특수강에서 근무하는 정형식(38)씨 가족! 아내인 윤영미씨(36), 딸 정지수(10), 그리고 아들 정태영(6)까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4인 가족이다.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마련한 예술테마 여행에 뽑힌 주인공 가족! 정형식씨가 테마 여행을 가게 된 이유를 이야기한다. “회사공지로 알게 되었어요. 딸이 음악과 미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신청을 했는데,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결정되고 나서는 단체 관광도 아니고 우리 가족만 간다고 해서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흔하지 않은 일인지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세심하고 주의 깊은 사람 같아 보인다. 평소 주말에는 조기축구모임도 하고 가족끼리 진주 수목원이나 진해 해양공원 등 가까운 곳으로 가족여행을 즐기는 편이고 일요일에는 월요일 출근을 위해 쉬는 정형식씨! 오늘 예술테마 여행지인 통영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해도 가끔 와 봤단다. 물론, 해금강이나 마리아 리조트, 포로 수용소 등 관광코스지만 말이다. 통영!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도시이다. 윤이상 국제음악제와 꽤 많은 먹거리로 유명한 통영! 영화처럼 외쳐본다. 우리는 지금 통영으로 간다아~

**조용하고 아담한 동네에서 유치환의 시를 만나다**

마산 내서에서 출발해 약 한 시간 정도 달렸을까. 바다가 보이기 시작한다. 거제 대교를 지나며 구불구불한 도로에는 코스모스가 진작부터 목을 빼고 가을을 알리고 있었는지. 바다를 배경삼아 한적한 작은 마을에 자리 잡은 유치환 기념관이 보인다. 들릴듯 말듯한 동요소리에 이끌려 기념관 안으로 들어선다. 청마가 남긴 시들과 그의 흔적들이 영상과 음악과 어울려 편안하게 있다. 청마의 생가는 아담하고, 잔디가 깔린 마당은 포근하다. 지수와 태영이는 이것저것 만져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신기해한다. 어린 시절이 아름다운 이유는 세상 모든 것이 궁금했기 때문 아니었을까. 기념관 옆에서 반세기 가 넘도록 시인의 영혼을 지키고 있었을 정자나무가 믿음직스럽다.

**젓가락 없는 충무김밥**

다시 바다를 바라보며 통영으로 들어선다. 출출한 허기를 충무김밥으로 채우기로 합의를 본다. 여기도 원조, 저기도 원조! 정말 어디가 원조인지는 모르지만 충무김밥의 원조가 통영인 것만은 믿기로 한다. 시원한 시락국에 깎두기, 오징어 매운 무침, 그리고 맨밥을 귀엽게 싸안은 김밥이 같이 나올 즈음, 태영이네 가족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엄마인 윤영미씨는 태영이를 보며 말한다. “말 안 듣는 거!” 음식을 앞에 두고 수저통을 보니 숟가락만 수북하다. 김밥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라곤 김밥위에 꽂힌 이쑤시개뿐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 통영에 왔으니 통영법을 따라야지. 이쑤시개 하나라도 맛난 충무김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아트타일이 돋보이는 전혁림 미술관**

오후 한시가 조금 넘어 도착한 전혁림 미술관. 이 미술관은 미륵산이 보이는 언덕마을 언저리에 올라앉아 있다. 이곳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미술관 벽면을 장식한 전혁림 화백의 아트타일에 다들 입이 벌어진다. 아이들은 미술관 구석구석을 돌며 가지각색의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어댄다. 이제야 여행이 실감 나는지 말소리로도 커지고 투정도 늘어난다. 3층에서 누드화를 본 아들 지수는 방명록에다 이렇게 적어놓았다. [선생님 작품 너무 멋졌어요. 그런데 여자 몸 그런 거는 남자가 보기에 야했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말을 써 놓았다. [마산 중리 내서읍 호계...선생님 영혼이 찾아오길.] 여섯 살 남자아이의 정신세계란!...

**골목골목 숨 쉬는 소설의 향기, 고 박경리 선생의 생가**

예쁜 그림들을 보고 나서 10분 거리에 있는 통영시 문화동 고 박경리 선생 생가를 찾았다. 소설<김약국집 딸들>에 나오는 서문고개의 오밀 조밀한 골목길 사이로 아이들이 뛰어간다. “인터넷에서 본 것 같다.”며 생가 푹말을 가리키는 아이들! 이내 아쉬운 표정을 한다. 생가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래도 사진 찍는 일은 빠지지 않는다.

**바다와 조각 예술**

박경리 생가에서 얻은 아쉬움을 열심히 털면서 얼마 걸리지 않아 조각공원에 도착했다. 파란 바다와 공원의 푸른 잔디! 특히 언덕위에서 바라보는 통영 앞 바다는 정말 장관이다. 아이들은 조각물을 놀이터 삼아 잘 놀다. 슬쩍 오늘 가족 여행을 만들어준 메세나에 대해서 물어본다. “잘 몰랐는데 여행참가가 확정되고 나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는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회사도 가입이 되어 있구나!”했다. “통영은 예전에 동료들이나 가족끼리 놀러 나오는 곳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윤이상, 박경리, 유치환, 전혁림 같은 사람들이 모두 이곳 출신이구나. 통영이 문화의 도시라는 것을 실감하겠다.”며 혀를 내두른다.

**통영 시민회관에서 윤이상의 소리를 듣다**

오후 5시에 시작되는 공연은 조각공원이 있는 통영시민회관에서 열린다. 아이들과 맘 놓고 놀 수 있었다. 시간이 다 되어가자 통영시민들이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또 어른들끼리 편안하게 공연장으로 입장한다. 음악이 생활이 된 것일까? 브람스의 <비극적 서곡>을 듣고 나서 윤이상 작곡 첼로 협주곡을 들었다. 윤이상의 자서전적인 이야기라고 한다. 출생, 수난과 고통, 이상과 자유로 구성되어 있고 유년기부터 옥중생활 그리고 삶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음악이라고 팜플릿에 써어 있다. 특히나 옥중생활을 표현한 첼로의 독백이 가슴에 남는다. 첼리스트 고봉인의 연주를 들으며 다들 가슴 아픈 표정이다. 마지막 연주된 곡은 ‘표본’. <광주를 기억하며>라는 부제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한다. 충격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곡...소감을 물으니 두 어른이 한결같이 대답한다. “좀 어렵네요.” 그렇지, 어려운 느낌도 느낌이다.

**여행을 정리하며**

만약에 돈이 엄청나게 많다면 절반은 가족과 여행하는데 쓰고 또 절반은 문화생활에 투자하고 싶다는 정형식씨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채우고 말한다. “일 년 동안 할 문화생활을 오늘 다 한 것 같아요. 오늘처럼 예술테마를 잡아서 여행하는 것도 좋군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는 정보도 부족하고 일정을 잡기도 힘들니까 메세나에서 이런 도움을 자주, 많이 줬으면 좋겠네요.” “특히 아이들에게 보여 줄 수 있었던 것이 잘 된 일이고 결혼10주년 기념으로 호주 오페라 하우스에 간 것보다 더 뜻 깊은 여행이었어요.” 눈동자속에 통영바다와 그 위를 춤추는 멜로디가 일렁이는 것 같다.







# “기업의 꿈과 미래를 문화와 예술지원을 통해 사회로”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거, 신기하네! 교문이 특이하다. 한쪽에는 커다랗고 길쭉하게 생긴 바위가 학교를 지키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몇백년은 족히 되었을직한 나무가 서 있다. 좌청룡 우백호 같다. 바위와 나무가 마주서서 사람들을 환영하는 창원 북면초등학교!  
현재 경남문인협회장인 김복근교장(58)이 근무하는 곳이다. 교무실과 교실들이 들어앉은 건물입구에서 노란 연꽃을 정갈하게 피운 돌 어항이 반긴다. 이전에 연꽃이 많던 곳이라, 아이들이 연꽃을 보면서 이 지역 자연환경의 변화도 생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한다. 김복근교장의 품새가 느껴진다. 교장실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약속하지 않은 손님이 들어섰는데, 중년의 남자는 이 학교 출신으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어 하는 기업인 독지가였다.

따뜻한 차 한 잔 마신 기분...  
마주앉은 김복근교장은 눈빛이 인자하면서도 예리하다. 지방신문에 실은 칼럼이 인상적이었다고 말을 건넸다. 순간, 안경너머 눈빛이 더욱 빛을 발하며 말과 동시에 포스를 쏟아낸다. 전통적으로 글 값 안주기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말문을 연다. 선비정신과 유학의 전통이 왜곡된 채 남아있어 그렇단다. 유달리 문인들만, 글 값만, 그 대가를 받기가 힘든 실정이라는 거다. 제값을 못 받는 글들은 힘을 잃기 마련인 탓인지, 요즘 문학이 행사 중심인 것도 걱정스럽다고 덧붙인다. 문학은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라 글이고, 무엇보다 좋은 글이 많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에 한 표!  
김복근 교장은 요즘처럼 주객이 전도된 한심한 실정을 타개해 보려는 야심 찬 목표를 스스로없이 드러낸다. 문인협회 수장다운 이야기다. 우선 생각한 일이 계절별로 나오는 경남문인협회보에 글을 실는 회원들에게 글 값인 원고료를 챙겨주자는 것이다.

문인협회보인 <경남문학>은 경상남도에서 제작비를 대고 있지만 인쇄비용등으로 다 나가고 회원들의 글 값은 그동안 모두 무료였다. 문인들에게 글 값을 주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내년에는 도의 예산편성이 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단다.  
또 다른 방책으로는 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는 것이다. 도민이 낸 세금으로 제작비를 대 주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민들이 읽고 위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제대로 라고 주장한다. 각 도서관과 공공기관이나 금융업체등에도 비치해 놓자는 의견이다. 요즘은 마을금고를 가도 한 구석에 작은 도서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가능성이 충분한 제안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 도나 시뿐만 아니라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도와주기를

기대한다. 그런 현실속에서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관심을 갖는 것을 기뻐한다. 현재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는 <경남문학>에 광고로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협의회에 소속된 기업들에서 <경남문학>지를 적극 구매하고, 좋은 원고를 책으로 출간할 수 있도록 창작지원금을 지급해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한다. 기업과 예술의 접점을 모색하는 것이 메세나 활동이라면, 주로 음악과 연극 쪽에 치중되어있는 메세나의 영역을 문학으로 확대할 시기이고, 공연예술과 전시예술이전에 그 바탕이 되는 문자 예술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기업을 토한다. 예술의 근간은 문학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음악이나 연극, 무용도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 자체는 바로 문학이니까. 또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그 물건에는 정신도 따라 들어가는 것이니, 기업의 생산활동 역시도 문학을 비롯한 인문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의 관계도 따로 노는 반대개념이 아니라고 강변한다. 내공이 쌓인 말이다.



부산점자도서관과 연계해서 점자시집과 한글 시집과 CD를 낸 일을 자랑한다. 이 일을 통해서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들리는 것은 들리지 않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사실 그동안 점자시집과 CD가 나온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점자시집과 함께 한글시집을 같이 낸 경우는 처음이었다. 올해는 점자시집을 중심으로 독후감 공모대회를 열었는데 너무나 높은 수준에 깜짝 놀랄 지경이었다. 2009년에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시 백일장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학은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때문이라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세상과 만나고 예술을 호흡할 수 있으려면 사회와 기업의 힘이 훨씬 더 필요할 것이다.

기업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 기업문화가 더 성숙하게 될 것이고, 그 덕택에 직원들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감을 원동력삼아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는 건 불 보듯 분명한 일이다.  
김복근 경남문인협회장, 끝으로 대한민국에는 세계적인 예술행사가 많지만 예로부터 경남이 문학 강세 지역임을 다들 놓치고 있다고 아쉬워한다. 한국전쟁 이후 대거 문학인들이 이주해 왔고 그때 뿌렸던 문학의 씨앗이 자라나서 지금은 밀거름을 주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기업과 예술의 상생을 위해 존재하는 경남메세나협의회에 거는 기대! 진네는 악수와 눈빛만큼 뜨겁다.



# “기업과 문화 예술이 동행하는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남메세나협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기업 문화마케팅 전략 세미나 및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을 가졌다.

경남메세나협회는 10월 7일 오후 5시 창원 인터내셔널호텔에서 지역 기업체 대표 및 지역 예술단체 관계자등 200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 행사는 남정숙(인터컬처 대표이사)씨의 [문화 경영과 문화리더십]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로 시작되었다.

“경영의 유일한 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의 40%가 문화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향후 문화마케팅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세미나였다. 우선 기업환경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작했다. 경영환경의 변화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비문화의 변화,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조직내부 환경의 변화등 여러 가지 변화요인들이 기업들에게 '환경과 문화예술'이라는 이슈를 자연스럽게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계 글로벌기업의 CEO들은 “기업의 유일한 목적이 경영이익만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커다란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화경영 사례를 살펴 보면, 공부방 지원이나 정기 MT, 스터디 그룹이나 동호회 지원, 독서세미나 등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례들은 어느 기업들이나 하는 천편일률적인 문화경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개별 기업만의 특별함이 있는 문화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화마케팅의 단계별 진행으로 1단계는 예술을 접목시킨 상품 및 브랜드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고 2단계는 예술 변형인데, 예를 들어 로레알의 베르사이유 궁전 리모델링 시 화장실 개보수(기업에 맞는 SCR)같은 것이 그 사례에 든다고 보았다. 문화 마케팅 3단계는 기업의 문화기업화로, 다시 말해서 기업자체가 문화기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예술 투입 등으로 기업이 통합적으로 문화 컨셉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였다. 이탈리아의 작은 기업이었던 베네통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베네통은 後염색기법이라는 칼라풀이 핵심역량인데, 이러한 핵심역량을 시각언어나 문화마케팅 기법을 통하여 이탈리아인 휴머니즘이라는 기업철학(반인종차별, 반 전쟁, 고정관념반대)을 시각언어를 활용,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예로 일본의 스와치 기업을 들었다. 일본의 경우, 전자시계의 확산으로 침체되었던 시계시장에서 점점 뒤떨어져 가던 스와치 기업이 시계와 '패션' 이미지를 결합시켜서 옷처럼 매일 바꾸는 패션시계를 개발한 것이다. 결국 다시금 시계시장 정상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스와치 기업은 특히 그 회사에서 통합적 문화 컨셉을 잘 잡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쁨을 토했다.

끝으로 남정숙(인터컬처 대표이사)씨는 “새 시대 새로운 경영 아젠다는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정리하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 “경남은 다른 지역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문동성 회장(경남은행장)은 경남메세나협회의 1주년 축하 인사말을 통해 지방에서 처음으로 출범한 경남메세나협회의가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을 표방하며 현재까지 153개의 회원을 가지게 되었고 경남메세나협회의가 경남문화예술 발전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이 다른 여러 지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 “문화와 예술이 동행하는 행복한 경남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포부도 잊지 않았다.

명예회장인 김태호 도지사 대신 참석한 정종인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남메세나협회의의 문화 나눔 사업으로 인하여 경남도민들에게 문화 향유와 문화선도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 모두 감사 한다.”며 축사를 대독하였다. 이어진 경남메세나협회의의 1년 브리핑에서는 사업추진 현황과 2008년도의 총 36개사 신규가입으로 현재 153개의 회원으로 확대 되었다는 사실과 앞으로의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진행 되었다.

경남에너지(주)-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경양석유(주)-경남첼버쏘사이어티, (주)동환-벨라미치 예술단, 미조종합건설(주)-한국연극협회거제지부, (주)북성산업-풍류추연연구소, 산골농장-지리산팝스오케스트라, 신창기계-마산청소년관현악단, 원광종합건설(주)-경남사건학술연구원, (주)포스아이-진해미술협회의 기업-예술단체간의 신규 결연식을 가졌다.

마무리행사로 생동감 넘치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벨라미치예술단이 축하공연무대를 마련했다. 뮤지컬과 영화로 유명한 [맘마미아]의 갈라콘서트 형식 공연이었는데 큰 박수를 받았다. 축하공연에 이어진 회원들의 건배와 만찬으로 경남메세나협회의 1주년 행사는 막을 내렸다.





# 문화예술로 “행복한 경남” 만들기

## 1. 기업과 예술의 만남 (Arts & Business)사업

기업과 예술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으로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통해 기업은 창조적인 문화경영을 도입하고, 예술단체는 수준 높은 창작활동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상호 발전을 추구한다. 기업은 현금 및 현물, 사내 여유 공간이나 인력등을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는 직원이나 직원가족에게 공연을 제공하거나 사내 임직원 예술교육, 기업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2008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경상남도과 경남메세나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경상남도에서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은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고, 문화예술단체는 기업지원 금액의 약 2배에 달하는 지원금 혜택을 얻는다. '2008년 경남 중소기업 예술지원 매칭펀드' 사업은 2008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2. 회원사 협력 사업

〈회원사를 위한 찾아가는 작은 공연〉은 협의회 회원사에 대한 문화서비스의 일환으로 문화예술단체가 회원사를 직접 방문하여 공연을 제공한다. 회원기업과 협의회가 비용을 분담하여 사내방문공연을 실시하며 기업은 직원과 직원 가족들에게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단체는 창조적 역량을 내보일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한다.

〈문화공감-예술의 향연〉은 회원사에 대한 문화서비스의 일환으로 바쁜 일상속에서도 문화예술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도내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 중 수준높고 인기있는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예술지원금 지정기탁〉 경남메세나협회는 재정경제부가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서 회원사가 자체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행사에 지원금을 출연하는 경우 우리 협의회를 경유하면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의 15%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 3. 문화나눔 사업

소외계층이나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찾아가는 메세나와 즐거운 나눔티켓의 두 가지 활동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메세나〉는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문화예술행사를 진행한다. 기업의 후원이나 협의회 예산으로 우수한 공연을 선보이고, 기업은 문화 마케팅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학교, 사회복지시설, 농촌 등으로 직접 방문하여 문화예술행사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지속적으로 문화를 통한 사회공헌도를 높일 수있을 것이다.

〈즐거운 나눔티켓〉은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사업이다. 기업의 후원이나 협의회 자체 예산으로, 문화소외계층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공연티켓을 제공한다.

## 4. 연구 및 홍보사업

〈문화경영 세미나〉는 기업메세나 및 문화마케팅의 추진 전략,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국내외 메세나 활동이나 문화마케팅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자료화하여 출간해서 기업 및 단체 대표나 마케팅 담당자들이 기업의 문화예술지원활동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수준높은 문화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메세나 매거진 발행〉

경남메세나협의회의 사업 소개 및 회원사의 메세나 활동,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생생하고 구체적인 메세나 활동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사 및 메세나 운동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메세나 매거진 〈경남메세나〉는 2008년 5월에 창간되었다.

### 〈언론홍보 등〉

언론홍보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해 메세나 운동의 필요성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메세나의 빠른 정착과 확산에 기여한다. 메세나 활동의 취지와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메세나 활동 소식을 전하는 언론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5. 2008 경남메세나상 시상

메세나를 통해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지역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헌신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시상함으로써, 경제와 문화예술이 함께 발전하는 수준 높은 문화복지경남 건설에 앞장선다. 또한 예술영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우수 문화예술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내 문화예술 영재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동기부여 및 지역 문화예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 - 2008 경남메세나상 시상 내용

| 부 문            | 상 격          | 대 상         |
|----------------|--------------|-------------|
| 문화경영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 기업          |
| 지역문화공헌상        | 경상남도 도지사 상   | 기업          |
| 경남메세나인 상       |              | 개인          |
| Arts&Business상 |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상 | 기업&문화예술단체   |
| 문화예술 영재상       |              | 대학생또는만25세이하 |

### - 응모 · 심사 · 시상식

경남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한 기업 및 경남도내 소재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는 기업(기업재단 포함), 경남도의 메세나활동에 기여한 개인, 경남지역 출신으로 대학생 또는 만 25세 이하의 문화예술인 지방생을 대상으로 2008경남메세나상 후보를 2008년 10월 24일까지 공모한 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상대상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개최될 〈2008 경남메세나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 - 주최및후원

〈주 최〉 사단법인 경남메세나협의회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 6. 신규회원모집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남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 중견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 다른 꿈을 꾸게 해준 일터, 서울이비인후과



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 송보경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그림을 배우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  
다. 고등학교 시절 이후 그림을 그릴 일이 없었는데 우연히 그림전  
시회를 가게 되었고 그림을 한번 배워봐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  
었다. 그런데 서울이비인후과에서 직원들을 위해 그림 교실이 운  
영되고 있는 거였다. 옮겨니 하고 망설임 없이 입사를 결심했고 그  
림교실에서 그림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일단 수강료를 병원에서  
전액 지원해 주다니 놀랍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나 싶었다.  
수강하는 직원들끼리 월 회비 조금씩 거두어서 간식 사 먹을 정도  
만 돈이 드니 한결 덜 부담스러웠다. 보통 그림은 재료값이 장난이  
아닌데 처음 재료비는 병원에서 모두 지원해주었고 나머지 스케치  
북이라든가 소모품은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선생님은 지역화가시기도 하고 공간마루 운영위원이신데, 그림공  
부뿐만 아니라 인생공부도 하게 해 주는 재미있는 분이시다. 사실  
선생님이 재미없으면 아무리 취미생활이라도 지속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림교실에서 배우기 시작한 지 2  
년 정도인데 처음에 태생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은 정물화, 그리고  
지금은 수채화를 집중적으로 배우고 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유화나 다른 분야도 도전해보고 싶다.  
보통 3시간정도 수업을 하는데 한 작품을 2주에서 3주정도에 걸쳐  
하는 편이다. 사실 일주일에 3시간이면 제대로 된 그림공부를 하  
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틈틈이 미술관련 책을 본다든가  
스케치 공부를 한다든가 조금씩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있다. 아직은  
취미활동차원이라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 없이 즐기는 정도라고  
보면 된다.  
그림을 배우게 되면서 가장 달라진 것은 주변 풍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다. 이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들도 그림  
을 그리기 시작하면서는 무엇이든지 수채화로 담으면 어떨까 생각  
하게 되고 나뭇잎 하나도 유심히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다른 방법으로 느끼게 되고 차츰차츰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한다고나 할까? 또 하나, 그림을 배우면서 달  
라진 점은 워낙에 산만한 편이라 한 가지일을 집중해서 못하는 편  
인데 그림을 그리면서 몰입하는 법을 배웠다는 사실이다. 2~3시  
간은 꼼짝없이 앉아 있게 되다 보니 저절로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  
한 것이다. 이제는 그림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집중해서 해 내  
는 인간이 된 것 같다. 헤헤.  
사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어지간히 부지런하지 않고는 힘든 일이다. 퇴근 후에 피곤한  
몸 이끌고 학원이고 어디고 가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스럽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 직장은 놀라운 곳이다.  
마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되고 돈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  
다. 직장에서 일도 하고 자기개발도 할 수 있고...이것이 내가 서울  
이비인후과에 입사하고 싶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시  
간이 흐르고 실력이 더 좋아지면 스케치 여행 같은 거 해 보고 싶  
은 것이 가장 빠른 계획이다. 진짜 풍경을 내 그림에 담아오고 싶  
다고 해야 할까. 축스러운 이야기지만 글 쓰는 법도 배워서 이쁜  
그림과 이야기를 담은 나만의 책도 만들어 보고 싶다. 동화책도 만  
들어 보고 싶고...  
사람이 살면서 꿈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다. 또 다른 꿈을 꾸게 해 준 이곳, 서울이비인후과! 먼훗날 지금의  
꿈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상관없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일하  
는 곳이 즐거운 곳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 주고 나에게 또 다른 꿈  
을 꾸게 해 준 이곳이 좋다는 거다.



## <정말 부조리하군>이 통쾌한 이유

(주)화영 손성민 과장



나는 지금의 회사 (주)화영에 입사하  
기 전까지 연극을 관람한 편수는 단 두  
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  
로 연극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해  
도 좋지요. 물론, 중년 남성 직장인들  
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  
다만...  
그런데 화영에 2007년 입사한 이후로  
1년동안 연극을 자그마치 5편이나 봤

주인공은 알몸이었거든요. 아내 표정은 뭐라고 말로는 표현 못  
할 미묘한 것이었는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 물어보려다가 시  
간이 지나면서 까먹어버렸습니다.  
그 육조 장면 때문만은 아니지만 연극이 끝난 후에는 열렬한  
박수가 절로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살펴보니, 다들 의미  
있는 웃음을 지으며 저처럼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회사직원들에게 연극을 보게 기회를 주  
는 일은 흔하지도 않고 아직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커서 감성을 건드리는 부분이 메마른 정서에  
도움도 되고 생산성에도 기여한다고 믿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봐도 앞으로는 이런 문화 경영이나 나아가  
문화 마케팅 부분을 놓치면 경쟁에서 어려울 것이라고 여겨집  
니다.  
밀양이라는 소도시에 이런 전문적으로 연극을 공연하는 밀양  
연극촌이 활동하고 있고 기업은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밀  
양 시민 입장에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여건이 허락하는 한 우리 화영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  
지 않고 상생하는 길을 함께 모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  
극 몇 편 보고 뭐 그렇게 대단하게 사람마음이 바뀌겠냐고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잠시 1시간여의 관람이었지만 확실히 마음  
의 여유랄지, 안정감과 평상심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문화생활을 하고 있다는 풍족감 역시 놓칠 수 없  
는 것인데요. 어떤 일이든 마음이 작용하는 힘이 크다고 말할  
하지 않습니까?  
직장일이나 사회 일, 가정 일 모든 것의 기본에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관  
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며 가족과 함께 즐길 예정입니다. 회  
사에게 고마운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습니다.  
갑자기 연극에 신이 들리기라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절대 아  
닙니다. 다만 우리 회사 (주)화영에서는 밀양연극촌과 결연을  
맺고 도움을 주면서 거기에서 공연하는 작품이 있으면 직원들  
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제가 일부 독식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볼수  
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연극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  
과 함께 즐겁게, 혹은 아내와 함께 단 둘이서 데이트도 해 가  
며 연극을 통한 문화생활을 쓸쓸히 한 것이죠.  
지금까지 본 연극으로는 <수노전>,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  
상한 사이버 나라>, <철수와 영희>, <정말 부조리하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본 <정말 부조리하군>은 진짜 통쾌  
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정치풍자극  
으로 유머와 재미를 섞어 무거워지기 쉬운 내용을 잘 표현했더  
군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니 제가 연극평론가나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당개 삼년이면 책을 읽는다더니, 하하하.  
아무튼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19세 미만 관람불가이  
고요. 육조에 있던 주인공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순간 저는  
아내의 표정부터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육조에서 일어난 남자



**기업-예술단체 기금지원 대상 확정**

메세나 매칭펀드의 첫 합격팀들이 나왔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업의 지원활동인 '메세나'에 경남도가 기금을 지원하는 '매칭펀드'가 올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지원대상 팀이 확정됐다. 경남메세나협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말 처음 열린 매칭펀드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경남스틸(주)-마산관악합주단 결연팀 등 모두 6개 결연팀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2008-05-08)

**<경남메세나 창간호>경남메세나협의회 발간**

경남메세나 창간호의 주제는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부제에서 드러난다. 메세나 활동에 따른 기업의 '시너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삼원테크 가족과 함께 한 숯대패사물놀이예술단의 정월 대보름공연과 일립나노텍 가족과 함께 한 문화송년회 등 찾아가는 공연 탐방이 책머리에 실렸다. (경남신문 2008-06-05)

**찾아가는 메세나 '사랑의 국악연주회'**

경남메세나협의회는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메세나 '사랑의 국악 연주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주회는 문화관람 기회가 적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을 찾아 전통음악의 맛과 멋을 전하며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무대로, 공연은 마산국악관현악단에서 맡았다. 경남메세나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내 문화소외계층 삶의 터전으로 직접 찾아가 도민의 문화향유기회를 넓히는 문화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남매일 2008-06-17)

**경남은행장 경남메세나協 회장 선임**

경남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난해 8월 설립된 사단법인 경남메세나협의회는 23일 오후 창원호텔에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문동성(59) 경남은행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문 신임 회장은 1949년 마산 출생으로 마산중과 경북고, 서울대 문리대를 졸업했으며 지난달부터 경남은행장을 역임하고 있다. 문 신임 회장은 "경남 문화예술의 발전과 부흥이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지역 메세나 운동의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행장은 앞으로 2010년 2월까지 경남메세나협의회장을 맡는다. (연합뉴스 2008-07-23)

**경남메세나협의회 두 번째 '즐거운 나눔티켓'**

경남메세나협의회(회장 문동성 경남은행장)의 올해 두 번째 '즐거운 나눔 티켓' 사업으로 거제지역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4백여명이 공연을 관람했다. 경남메세나협의회 손갑동 전무는 "문화적인 경험을 하기 힘든 꿈나무들에게 더욱 많은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앞으로는 도내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2008-08-20)

**사진으로 들려주는 주남저수지 이야기 (회원사 원광종합건설 조성제 사장)**

환경사진작가이자 건설회사(원광종합건설) 대표이사인 조성제씨가 9월 9일부터 11월13일까지 경남도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랍사르 총회기념특별전중 하나인 'Site&Sight:습' 사진전에 작품 20점을 출품한다. (경남신문 2008-09-03)

**기업과 예술의 만남 '인산 가곡제' (회원사 '인산죽염촌')**

인산 가곡 상림위원회가 주최하는 '2008 인산 국제가곡제'가 함양 상림공원 내 다별당에서 열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중 하나로 꼽히는 함양 상림에서 열린 이번 가곡제는 도나 군의 예산 지원없이 순수 민간 예산으로 꾸려진 작은 규모의 국제 음악제였다. 서부경남의 기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향유를 제공해준 바람직한 메세나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경남일보 2008-09-08)

**경남메세나協, 창립 1주년 세미나**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오늘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문화마케팅 전략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터컬처 남정숙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기업의 문화마케팅 어떻게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10여개 기업과 예술단체의 결연식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해 10월 출범한 경남메세나협의회는 그 동안 153개 회원 기업들이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KNN 2008-10-08)

**메세나로 문화마케팅 최종경 경남스틸(주) 사장**

"공업도시인 창원의 이미지를 문화예술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했으면 합니다." 최근 민간오페라단인 경남오페라단(단장 정찬희)에 1억원을 메세나(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기업 또는 활동)한 경남스틸(주) 최종경 사장은 "경남오페라단 창단 발기인으로 참여해 남다른 애착이 있고 강영중 초대단장(작고)의 유지를 잇을 수 없는 테다 올해가 한국오페라 도입 60년인 뜻깊은 해이기 때문에 결심했다"고 지원동기를 밝혔다. 최 사장은 '지역에서 돈을 버는 기업은 지역을 위해 써야 한다'는 신념으로 매년 경남스틸의 이익금 10%를 장애인재활과 장학사업, 메세나 등 3개 분야에 지원하고 있다. 메세나활동은 일반인들에게 용어조차 생소했던 20여년 전부터 시작했다. 그동안 음악·문학·미술분야에 10억여원을 지원했다. (경남신문 2008-10-09)

**메세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

경남메세나협의회 창립 1주년. 문화예술은 정책적 지원이나 민간 후원이 없으면 발전은커녕 유지하기도 어렵다. 지역 문화예술은 더욱 그렇다. 문화예술이란 게 일정 규모 이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잉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남메세나 창립은 그래서 의미가 크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대미 중속적인 한국 경제는 심한 몸살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를 예상하고 있고, 국민은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 문화예술계도 적잖은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과 기업·민간의 창조적 만남인 '메세나'. 경남메세나협의회와 지역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기업·민간에서 메세나에 대한 이해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경남도민일보 2008-10-13)





| 임원   |              |      |     |
|------|--------------|------|-----|
| 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 명예회장 | 경상남도         | 도지사  | 김태호 |
| 고문   | STX그룹        | 회장   | 강덕수 |
|      |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감  | 권정호 |
|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대표이사 | 김홍경 |
|      | 태광산업(주)      | 회장   | 박연차 |
|      |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 회장   | 박창식 |
|      | 경상남도의회       | 의장   | 이태일 |
|      | 무학그룹         | 회장   | 최위승 |
|      | 자문위원장        | 경남신문 | 회장  |
| 자문위원 | KNN경남본부      | 본부장  | 김영일 |
|      | 경남일보         | 회장   | 김흥치 |
|      | 마산MBC        | 사장   | 박노홍 |
|      | 경남매일         | 사장   | 여종필 |
|      | 연합뉴스경남취재본부   | 본부장  | 윤대복 |
|      | KBS창원방송총국    | 총국장  | 전진국 |
|      | 진주MBC        | 사장   | 정일윤 |
|      | 경남도민일보       | 사장   | 허정도 |
| 회장   | 경남은행         | 은행장  | 문동성 |
| 부회장  | 동환산업(주)      | 회장   | 고동환 |
|      | 경상남도의회       | 도의원  | 도난실 |
|      | 삼원테크(주)      | 대표이사 | 이택우 |
|      | 경남오페라단       | 단장   | 정찬희 |
|      | 경남스틸(주)      | 대표이사 | 최충경 |
| 감사   | (주)신우공업      | 회장   | 신용운 |
|      | 창원서울이비인후과    | 대표원장 | 정태기 |
| 이사   | 민족예술인총연합경남지회 | 지회장  | 고승하 |
|      | 고운치과병원       | 병원장  | 고철수 |
|      | (주)인산가       | 대표이사 | 김윤세 |
|      | 한림건설(주)      | 대표이사 | 김의수 |
|      | (합)대신전기공업사   | 대표   | 박기태 |
|      | (유)의령산업      | 회장   | 이동기 |
|      | (주)대정엠텍      | 회장   | 이병우 |
|      | 산골농장         | 대표   | 이상호 |
|      | (주)장생도라지     | 대표이사 | 이영춘 |
|      | 대경건설(주)      | 회장   | 이윤우 |
|      |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 본부장  | 이재관 |

| 임원 |            |      |     |
|----|------------|------|-----|
| 구분 | 소속         | 직위   | 성명  |
| 이사 | 한국예총경남도연합회 | 회장   | 이종일 |
|    | (주)화영      | 대표이사 | 이홍원 |
|    | (주)영남엘피씨   | 대표이사 | 장환달 |
|    | 동인하이텍(주)   | 회장   | 전수도 |
|    | STX조선(주)   | 대표이사 | 정광석 |
|    | 마산정안과      | 대표원장 | 정기용 |
|    | 성동조선해양(주)  | 회장   | 정홍준 |
|    | 원광종합건설(주)  | 대표이사 | 조성제 |
|    | 화성종합건설(주)  | 대표이사 | 최순탁 |
|    | 마산청아병원     | 이사장  | 최재영 |
|    | 한국제강(주)    | 회장   | 하성식 |

| 기업회원        |         |     |    |
|-------------|---------|-----|----|
| 회원사명        | 직위      | 대표자 | 지역 |
| 거제레미콘(주)    | 대표이사    | 윤원택 | 거제 |
| (주)건창       | 대표이사    | 이상인 | 진해 |
| 경남스틸(주)     | 대표이사    | 최충경 | 창원 |
| 경남에너지(주)    | 대표이사 사장 | 정연욱 | 창원 |
| (주)경남은행     | 은행장     | 문동성 | 마산 |
| 경양석유(주)     | 대표이사    | 이인호 | 마산 |
| 경원벤텍(주)     | 대표이사    | 공경열 | 김해 |
| 경원여객자동차(주)  | 대표이사 회장 | 강세민 | 진주 |
| 고운치과병원      | 병원장     | 고철수 | 창원 |
| 광신기계공업(주)   | 대표이사    | 권환주 | 함안 |
| (합자)금강전기공업사 | 대표      | 양우석 | 김해 |
| 금성이노텍(주)    | 대표이사    | 전도열 | 진주 |
| (주)기산산업     | 대표이사    | 최주철 | 김해 |
| 김해상공회의소     | 상임위원    | 박영재 | 김해 |
| 낙우산업(주)     | 대표이사    | 이용민 | 산청 |
| (주)노키아티엠씨   | 대표이사    | 김기순 | 마산 |
| 농협중앙회경남지역본부 | 본부장     | 이재관 | 창원 |
| 누가병원        | 병원장     | 이주형 | 김해 |
| 대경건설(주)     | 회장      | 이윤우 | 진주 |
| (주)대동종합건설   | 대표이사    | 이두원 | 창원 |
| 대방스페셜스틸(주)  | 대표이사    | 김양규 | 김해 |

| 기업회원        |      |     |    |
|-------------|------|-----|----|
| 회원사명        | 직위   | 대표자 | 지역 |
| 대신금속(주)     | 대표이사 | 박수현 | 창원 |
| (합)대신전기공업사  | 대표   | 박기태 | 고성 |
| (주)대정엠텍     | 회장   | 이병우 | 창원 |
| 대한전선전기(주)   | 대표이사 | 신중철 | 마산 |
| (주)대호엠엠아이   | 대표이사 | 김종수 | 창원 |
| (주)덕광기업     | 대표이사 | 이상석 | 고성 |
| 덕산산업(주)     | 대표이사 | 이상국 | 김해 |
| (주)동신건설     | 대표이사 | 박영호 | 거제 |
| (주)동신메카텍    | 대표이사 | 길창용 | 함안 |
| 동양특수금속(주)   | 대표이사 | 전말선 | 창원 |
| (주)동오프랜지    | 대표이사 | 최옥렬 | 창원 |
| (주)동은화학     | 대표이사 | 박창원 | 김해 |
| 동인하이텍(주)    | 회장   | 전수도 | 창원 |
| (주)동환       | 대표이사 | 조영파 | 창원 |
| 동환산업(주)     | 회장   | 고동환 | 창원 |
| 두남화학        | 대표   | 김두선 | 김해 |
| 디씨엑스(주)     | 대표이사 | 최덕봉 | 김해 |
| 디씨엠(주)      | 대표이사 | 정연택 | 양산 |
| 디엔스틸주식회사    | 대표이사 | 박봉재 | 김해 |
| 라운건설(주)     | 대표이사 | 손정수 | 마산 |
| (주)마린테크     | 대표이사 | 백승찬 | 김해 |
| 마산정안과       | 대표원장 | 정기용 | 마산 |
| 마산청아병원      | 이사장  | 최재영 | 마산 |
| 무림페이퍼(주)    | 대표이사 | 김인중 | 진주 |
| (주)미래산업     | 대표이사 | 정재훈 | 창원 |
| 미조종합건설(주)   | 대표이사 | 박종우 | 거제 |
| 바칠라캐빈(주)    | 대표이사 | 신상헌 | 고성 |
| (주)베스트엔드베스트 | 대표이사 | 서준호 | 김해 |
| (주)보강기업     | 대표이사 | 김경고 | 김해 |
| 보화종합건설(주)   | 대표이사 | 최순권 | 진주 |
| (주)부일엔씨     | 대표이사 | 김철  | 김해 |
| (주)북성산업     | 대표이사 | 박환병 | 창원 |
| 산골농장        | 대표   | 이상호 | 산청 |
| (주)삼보산업     | 대표이사 | 윤병고 | 함안 |
| 삼우금속공업(주)   | 대표이사 | 방효철 | 창원 |
| 삼원동관(주)     | 대표이사 | 김갑수 | 김해 |

| 기업회원       |      |     |    |
|------------|------|-----|----|
| 회원사명       | 직위   | 대표자 | 지역 |
| 삼원테크(주)    | 대표이사 | 이택우 | 창원 |
| (주)삼정터빈    | 대표이사 | 정진욱 | 김해 |
| 삼중건설(주)    | 대표이사 | 김연우 | 창원 |
| (주)삼진      | 대표이사 | 강영일 | 거제 |
| (주)삼화텍     | 대표이사 | 이정열 | 김해 |
| 삼흥열처리      | 대표   | 주보원 | 김해 |
| (주)샤인      | 대표이사 | 신이현 | 부산 |
| 성동조선해양(주)  | 회장   | 정홍준 | 통영 |
| (주)성우기전    | 대표이사 | 이상길 | 창원 |
| (주)성지      | 관리이사 | 강희숙 | 마산 |
| (주)세복      | 대표이사 | 김복기 | 창원 |
| (주)센트랄     | 회장   | 강태룡 | 창원 |
| 승진기계(주)    | 대표이사 | 백구영 | 마산 |
| 신광에이스전기(주) | 대표이사 | 김강민 | 김해 |
| 신대양(주)     | 대표이사 | 박종춘 | 진해 |
| 신동방산업(주)   | 대표이사 | 성세열 | 양산 |
| (주)신우공업    | 회장   | 신용운 | 함안 |
| (주)신우디텍    | 대표이사 | 백화진 | 창원 |
| 신창기계       | 대표   | 구자도 | 마산 |
| (주)신택      | 대표이사 | 조용수 | 창원 |
| 신화철강(주)    | 대표이사 | 정현숙 | 창원 |
| (주)에드테크    | 대표이사 | 박기용 | 마산 |
| (주)영남엘피씨   | 대표이사 | 장환달 | 창녕 |
| (주)영신화학    | 대표이사 | 강영전 | 김해 |
| (주)영일정공    | 대표이사 | 유병일 | 창원 |
| (주)오곡산업    | 대표이사 | 윤종열 | 함안 |
| (주)우성건설    | 대표이사 | 최송규 | 김해 |
| 원한의원       | 원장   | 원호영 | 진주 |
| 원광산업석재     | 대표   | 이상섭 | 거창 |
| 원광종합건설(주)  | 대표이사 | 조성제 | 창원 |
| (주)웰템      | 대표이사 | 박정우 | 창원 |
| 유전철강(주)    | 대표이사 | 류재기 | 창원 |
| (유)의령산업    | 회장   | 이동기 | 의령 |
| 의료법인복음의료재단 | 사무국장 | 정지영 | 진주 |
| 의료법인진주의료재단 | 이사장  | 박건  | 진주 |
| (유)이삼사보이호텔 | 대표이사 | 홍종대 | 마산 |



**기업회원**

| 회원사명        | 직위   | 대표자 | 지역 |
|-------------|------|-----|----|
| (주)이앤티      | 대표이사 | 박갑진 | 밀양 |
| (주)인산가      | 대표이사 | 김윤세 | 함양 |
| 인산죽염촌(주)    | 대표이사 | 최은아 | 함양 |
| 인화정공(주)     | 대표이사 | 이인  | 창원 |
| 일림나노텍(주)    | 부회장  | 박효찬 | 창원 |
| (주)장성E.P.S  | 대표이사 | 신종길 | 창원 |
| (주)장한       | 대표이사 | 장이근 | 거제 |
| (주)장생도라지    | 대표이사 | 이영춘 | 진주 |
| 정남종합건설(주)   | 회장   | 송한영 | 남해 |
| 중앙건설(주)     | 대표이사 | 여봉규 | 마산 |
| (주)중원비엔피    | 대표이사 | 심부관 | 김해 |
| 중원종합건설(주)   | 회장   | 안권상 | 진주 |
| (주)진명       | 대표이사 | 김덕진 | 김해 |
| (주)진영       | 대표이사 | 박상진 | 함안 |
| 창원상공회의소     | 회장   | 박창식 | 창원 |
| 창원서울이비인후과   | 대표원장 | 정태기 | 창원 |
| (주)창원자동차학원  | 대표이사 | 김진열 | 창원 |
| (주)천도       | 대표이사 | 김승훈 | 거제 |
| 초심공업(주)     | 대표이사 | 석현동 | 밀양 |
| (주)캐스탑      | 대표이사 | 정병환 | 창원 |
| 쿠쿠홈시스(주)    | 회장   | 구자신 | 양산 |
| 태광실업(주)     | 회장   | 박연차 | 김해 |
| (주)대영버스     | 회장   | 정문흠 | 부산 |
| (주)태완정공     | 사장   | 박수완 | 진주 |
| (주)태현메가텍    | 대표이사 | 박병출 | 창원 |
| 포스코특수강(주)   | 대표이사 | 성현욱 | 창원 |
| (주)풍양에스엔티   | 대표이사 | 김명재 | 진해 |
| 피케이밸브(주)    | 대표이사 | 박헌근 | 창원 |
| 하이에어코리아(주)  | 대표이사 | 김근배 | 김해 |
| 한국소니전자(주)   | 대표이사 | 전재철 | 마산 |
| 한국정기공업(주)   | 대표이사 | 류흥목 | 창원 |
| 한국제강(주)     | 회장   | 하성식 | 함안 |
| 한국태양유전(주)   | 대표이사 | 이헌주 | 마산 |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 대표이사 | 김홍경 | 사천 |
| 한림건설(주)     | 대표이사 | 김의수 | 창원 |
| (주)호텔인터내셔널  | 회장   | 윤영호 | 창원 |

**기업회원**

| 회원사명         | 직위   | 대표자 | 지역 |
|--------------|------|-----|----|
| (주)화성        | 대표이사 | 이용일 | 창원 |
| 화성종합건설(주)    | 대표이사 | 최순탁 | 거창 |
| 화신타수섬유유틸타(주) | 대표이사 | 조인순 | 김해 |
| (주)화영        | 대표이사 | 이흥원 | 밀양 |
| (주)화영        | 대표이사 | 손화현 | 김해 |
| (주)화인에이티씨    | 대표이사 | 윤상대 | 김해 |
| 화인테크놀로지(주)   | 대표이사 | 서영옥 | 양산 |
| 화일종합건설(주)    | 회장   | 정복영 | 진주 |
| (주)환웅전기      | 대표이사 | 한장규 | 마산 |
| 흥일기업(주)      | 회장   | 윤한생 | 김해 |
| ONE          | 대표   | 이중호 | 김해 |
| (주)POSI      | 대표이사 | 최기석 | 진해 |
| STX엔진(주)     | 대표이사 | 이강식 | 창원 |
| STX조선(주)     | 대표이사 | 정광석 | 진해 |

**예술단체회원**

| 회원사명         | 직위  | 대표자 | 지역 |
|--------------|-----|-----|----|
| 거제시문화예술재단    | 관장  | 김형석 | 거제 |
| 경남오페라단       | 단장  | 정찬희 | 창원 |
| 민족예술인총연합경남지회 | 지회장 | 고승하 | 창원 |
| 한국예총 경남도연합회  | 회장  | 이종일 | 창원 |

**개인회원**

| 소속         | 직위   | 성명  | 지역 |
|------------|------|-----|----|
| 보성하이텍(주)   | 대표이사 | 김성삼 | 창원 |
| 김안과의원      | 원장   | 김해곤 | 마산 |
| 세영산업       | 대표   | 남혜정 | 김해 |
| 경남도의회      | 도의원  | 도난실 | 창원 |
| 경남도의회      | 도의원  | 임경숙 | 마산 |
| 우리법무사합동사무소 | 대표   | 조동식 | 김해 |
| 삼정기업       | 사장   | 최정두 | 마산 |

#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제안하는 문화송년회

품격있고 특별한 송년회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클래식, 팝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등 공연의 감동과 참여의 기쁨이 함께하는 문화송년회.  
직원 및 직원가족들에게 기억에 남을 특별한 송년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 주요 프로그램

### 7080 추억의 팝과 영화음악

- 감동을 알게 해준 영화 이야기, 사랑을 가르쳐준 팝송 이야기
-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7080 세대를 위한 영화 OST 및 팝송을 모티브로 하여 수준 높은 음악회
- 지휘자의 음악에 대한 해설이 있고, 7080 관람객들의 수다가 함께 있는 추억을 떠올리며 만들어 내는 음악 소설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의 공연

### 세대공감 옛 가락의 신명

- 얼쑤, 얼씨구, 좋다, 지화자! 직원과 그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 지켜 보는 공연이 아닌 풍물패들과 관람객들이 함께 배우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
- 마당극 공연 속에 관객들이 흡수되어 함께 추임새를 넣으며 즐기는 유쾌한 한마당

### 품격있는 클래식 이야기

- 라트비아타, 카르멘, 사랑의 묘약, 나비부인 등에 나오는 유명 오페라 곡과 친근한 클래식이 함께하는 품격있는 연주회
- 어렵다고만 생각해왔던 클래식을 음반이 아닌 라이브로 감상하는 편안하고 멋진 시간
- 전문가의 곡에 대한 간단한 해설과 더불어 유명 음악가들의 재미있는 이야기

### 클래식과 국악이 어우러지는 퓨전음악회

- 색다른 느낌의 퓨전음악회
- 크리스마스송, 팝송 등 친근한 곡을 서양악기와 전통국악기가 어우러져 연주하는 재미있는 음악회
- 다양한 분야의 음악이 서로 어울리면서 색다른 분위기의 음악회
- 서양음악의 매력과 국악의 매력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시간

### 전직원이 참여하는 100인의 사물놀이

- 사물놀이 예술단의 맛깔스런 공연
- 사물놀이를 직접 배워보는 전직원의 화합의 자리
- 전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참여형 공연

- ▶ 기업회원사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공연비용의 50%(100만원 한도)를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지원합니다.
- ▶ 기업체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합니다.
- ▶ 송년회뿐 아니라 신입사원연수, 직원연수, 창립기념일 등의 행사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1부 제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기업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 메세나란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

### 메세나의 어원

문화예술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정치가 마에케나스(Caius Cilinius Maecenas)의 인명에서 유래

1967년 미국의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후원 활동을 통칭.

